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은기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공군발전협회 제10차 안보학술회의 개최

‘우주경쟁 시대의 생존전략’ 주제로



공군발전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후원한 2022년도(제10차) 안보학술회의가 6월15일 공군호텔에서 ‘우주경쟁 시대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민홍철 전 국회 국방위원장, 이한호 성우회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역대 공군참모총장 및 현역과 예비역, 방산업체 임원, 안보 전문가 등 약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보학술회의는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은기 공군발전협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홍철 전 국회 국방위원장 축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서면축사 및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기조연설,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은기 공군발전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인류의 삶이 위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과거 평화적 이용과 도전의 영역으로 여겨온 우주도 우주의 군사화,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강대국간 우주군사분야의 경쟁은 국제 안보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번 학술회의 주제를 ‘우주경쟁 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선정한 것은 우주군사부분에서의 안보위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우주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기술과 산업역량을 결집시켜 국방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며 “소중하고 유익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우주 영역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와같은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군은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계획인 ‘에어포스 퀴텀 5.0’을 근간으로 ‘공군 4대 핵심능력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전 세계적인 우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민·관·군은 물론이고 우주 선진국들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며 “우주 선진국들과의 강력한 협력은 대한민국의 제한적인 우주작전역량과 재원하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서울대학교 김

승조 교수가 ‘우주기술의 파괴적 혁신과 미래발전방향’을, 이성범 공군전투발전단장이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우주력 발전방안’을, 오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국가 우주 조직체계 및 우주 전문인력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에는 최기영 인하대학교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이동규 연세대 미래기술센터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선진 강대국들의 우주영역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우주경쟁 시대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국가 우주정책과 국방력 건설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데 공감했다.//

국립서울현충원 합동참배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본회는 6월 3일 10시 30분 공군예비역단체인 공사총동창회, 학사장교회 및 전공상유공자회 임원 등 약 60여명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충훈탑에서 합동참배를 했다. 이날 참석자 모두는 조국을 위해 순국하

신 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헌화, 분향 및 묵념 등 참배행사를 엄숙히 거행하였으며, 합동참배 전·후에는 신분별 또는 개인별로 연고묘역을 찾아 옛 전우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공군전우회 중앙회 회장단 회의



본회 김은기 회장은 5월 25일 공군호텔에서 본회 부회장 및 임직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임원 선임증 수여, 회장 인사말에 이어 본회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복무계획 보고 및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회 임원으로 위촉을 흔쾌히 승낙하여주시는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우회 발전을 위한 우리 회장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회장단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취임인사차 예방



지난 5월 27일 취임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대장,공사36기)이 6월 8일 취임 인사차 본회 김은기 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본회 김 회장은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참모총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두 단체는 공군 발전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특히, 예비역 대표

단체인 공군전우회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대답을 나누고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시의 경험담 등을 정 총장에게 전해주었다. 신임 정 총장은 “조국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지켜봐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 이근석 장군 추모식



공군전우회 및 공군군수사령부는 7월 4일 본회 중앙회 임원, 대구지부 회원 등 56명과 대구기지 지휘관 참모 및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故) 이근석 장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고 이근석 장군 약력소개, 헌화, 분향, 추모사, 추모가, 종교의식 순으로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고 이근석 장군은 초창기 대한민국 항공부대 창설과 전력화를 주도한 인물로, 6·25 전쟁 때는 F-51D 무스타를 타고 최초의 전

투기 출격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이 장군은 1950년 7월 4일 북한군 전차 대열에 포격을 가하던 중 피탄되자 적 전차를 향해 돌진하여 34세의 나이로 장렬히 순화했다. 본회 김은기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공군은 장군님의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그 어떤 상황하에서도 조국을 지켜내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속의 선진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재복 공사총동창회장 내방



박재복 공사총동창회장과 이경달 사무총장이 5월 11일 본회를 방문하여 본회 김은기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오찬을 함께 했다. 박 회장 일행은 4월 1일 취임한 “본회 전우회장님의 취임을 축하 드린다”며 “공군

전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 김 회장은 “공사총동창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하여 공군 발전을 지지/후원하는 두 단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심인태 미 LA 지회장 내방

심인태 미 LA 지회장이 5월 9일 본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김은기 회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전우회 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심 지회장은 LA 지회 일반현황 및 주요활동사항 등을 보고하고, “현재 미 LA 지회는 약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본회 김 회장은 중앙회를 방문한 심 지회장에게 “LA 지회 활성화와 회원관리에 최



선을 다 하고 있는 심 지회장에게 고맙다”며 “지회 발전 및 지회 회원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군 ROTC장교회 회장단 내방



본회 산하단체인 공군ROTC장교회(회장 김형구)회장단 3명이 5월 4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은기 회장 및 임직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전우회 발전 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형구 회장은 공군ROTC장교회의 일반현황 및 주요 활동상을 간략히 보고하고, 중앙회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본회 김 회장은 “공군ROTC장교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치하”하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앙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서로 잘 협조하면서, 특히 회원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공군ROTC 장교회 회원은 약 43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특히 공군ROTC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연례행사로 지속 실시하고 있다.//

김윤철 미 하와이 지회장 내방



김윤철 미 하와이 지회장이 5월18일 본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김은기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전우회 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김 지회장은 하와이 지회 일반현황 및 주요 활동사항 등을 보고하였으며, 본회

김 회장은 중앙회를 방문한 김 지회장에게 “지회 활성화와 회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에 고맙다”며 “지회 발전 및 지회 회원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익 다쏘시스템코리아 대표 공군발전협회에 발전기금 전달



이원익 다쏘시스템코리아 공공부문 대표가 4월13일 공군발전협회(이하 본회)를 방문하여 본회 임직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본회 발전기금으로 김은기 회장에게 500 만원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공사 19기 이송호 예비역 대령의 아들로 어렸을 적부터 부친의 주기종인 F-5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한민국 공군 F-5’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다.

책 가운데 F-5 순직조종사들의 명단을 정리했는데 “최초도입 F-5A 까지 무려 52 명이 순직했다”면서 “이런 순직이 전투기 노후화 때문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노후화된 도태항공기를 교체

하여 전력을 최신화 하는데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일간지 및 본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보라매 101호) 등에 기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난 3월 23일 공군하늘사랑장학재단에 1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 김 회장은 “공군가족의 일원으로서 공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이 대표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다쏘시스템코리아와 본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며 “공군과 본회 발전을 위한 이 대표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022사천에어쇼’ 기획단에 방역마스크 5만장 후원



본회 김은기 회장은 올해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2 사천에어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바램으로 6월 7일 본회를 방문한 사천에어쇼 기획단에 방역마스크 5만장을 전달했다.

이날 본회를 방문한 ‘2022사천에어쇼’ 기획단 4명은 김은기 회장에게 사천에어쇼 행사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자문을 청취했다. 본회 김 회장은 “성공적인 사천에어쇼가

되길 기원한다”며 “사전에 유관부서와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는 올해 안보현장 견학 일환으로 사천에어쇼 행사 개막일인 10월 20일 공군전우회원 약 130여명이 사천에어쇼 개막행사에 참석하고,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견학 후 사천지구 호국영령 추모행사에 참석 할 예정이다.//

148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42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본회 김은기 회장은 6월 2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148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하여 김태형 소위에게 본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신입장교 382명은 약12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초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강인한 체력과 전투 지휘능력을 배양했으며, 행사는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5월 4일 열린 242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에는 320명의 신입부사관이 탄생했으며 본회에서는 흥동호 하사에게 보라매상을 전수했다.//

중앙회 임원선임 현황

본회 김은기 회장은 지난 3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선임을 위임받았던 중앙회 임원을 2022.4.1일부로 각각 임명하였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가나다 순)

◆ 부회장 (18명)

고석인 김정운 김진홍 김한용 김형구 김호연 박신규 신익현 안재봉 이구목 이승은 장홍진 전용기 정수 정주호 제종진 차주성 홍성용

◆ 감사 (2명)

김영곤 박병철

◆ 이사 (총 106명, 특별이사는 별도관리)

● 당연직: 총 62명(*회장, 부회장 19명 포함, 산하 단체장 중복자 5명 제외)

- 중앙회 국장급(2명) 박청길 염규열

- 산하 단체장(8명)

김정운(황성회장) 김진홍(공군항공고총동창회장) 김형구(공군ROTC장교회장)

박동규(유치관장군 호국정신보존회장) 이유희(조종간부회장)

전용기(공군2사총동문회장) 정화일(군무원회장) 차주성(원우회장)

- 국내 지부장(6명)

김중윤(부산) 김호중(대전) 남상석(대구) 손정문(광주) 좌중언(제주) 최용주(인천)

- 국내 지회장 (32명)

권영화(속초) 김구식(원주) 김수영(양평) 김시영(의왕) 김영준(경주)

김연택(아산) 김정수(동두천) 김철준(화천) 노상윤(진주) 박갑용(사천)

박문석(성남) 박종재(군산) 설병철(창원) 신건영(포천) 양찬모(예천)

왕관현(평택) 은헌기(군위) 이균신(청주) 이진권(칠곡) 임현상(김해)

장호근(영월) 정도진(수원) 정호영(전주) 조동주(충주) 조봉환(충남서부)

조성수(문경) 최병훈(익산) 한상욱(이천) 허기영(영주) 홍만진(서산)

홍학기(금천) 황용기(강릉)

● 임명직(44명)

- 산하/협력단체 (31명)

김봉한 김성대 김영근 김인기 김재학 김준동 김학권 김흥련 박용서 박태혁

박평서 손우석 신상식 심준택 원종문 유만호 윤산중 이성우 이은수 장호관

정명섭 정보용 정상종 정영진 정창근 조광래 조용춘 차수남 채지광 현창근

홍종화

- 산하 단체/지부(사무총장/국장 13명)

김경태(부산) 방정원(항과고) 이명환(ROTC) 서종관(제주) 신두철(대전)

김승식(광주) 윤양로(인천) 이원(군무원) 장군(황성) 전안영(2사) 정규채(대구)

정재필(제주)

*특별이사는 수시 변동으로 명단에서 제외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정상화 신임 총장, 최강 공군 다짐



5월 27일 제40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한 정상화 대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 공군 건설을 다짐했다. 공군은 이날 계룡대 연병장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39·40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각 군 총장, 군 주요 지휘관, 공군본부 부·실·단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사명령 낭독, 공군기 이양, 열병, 장관 훈시, 이임사,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 총장은 취임사에서 “조국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 건설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15특수임무비행단장, 공군참모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합참 작전기획부장, 연습훈련부장, 전략기획부장 겸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센터장,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작전·전략 분야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6·25전쟁 출격조종사 초청행사



공군은 6월 16일 공군호텔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6·25전쟁 출격조종사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우리 공군 최초로 100회 전투 출격기록을 달성한 김두만 예비역대장을 비롯해 신관식 이배선 신준기 예비역대령, 이학선 예비역중령 등 5명의 6·25전쟁출격조종사가 참석했다. 출격조종사들은 당

시 긴박했던 상황과 경험을 회상해 참석장병들에게 들려주었다.

정 총장은 “6·25전쟁당시 선배님들께서 목숨 건 출격으로 몸소 보여주신 뜨거운 애국심과 위국헌신 군인본분은 지금까지도 후배들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며 “그 투혼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영공방위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도 예비역 정책간담회



공군 예비역의 공군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친공군화를 위한 2022년도 예비역 정책간담회가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14개 부대에서 16차례 걸쳐 약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책간담회는 임관기수별로 공군본부

기본계획하에 행사장소별로 각 부대장이 주관하여 공군정책과 부대현황 보고, 체력 단련, 문화탐방 및 만찬을 함께 함으로써 공군출신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딘 헤스 미 공군대령 7주기 추모식

6·25전쟁 항공전 영웅이자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고(故) 딘 헤스 미 공군대령의 서거 7주기를 맞아 고인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공군은 5월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박인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딘 헤스 대령 공적 기념비 참배식을 거행했다.



딘 헤스 대령은 6·25전쟁 당시 미 공군이 우리 공군의 F-51 전투기 훈련과 조종사 양성을 위해 창설한 바우트 원(BOUT-1) 부대를 이끌었다. 최단기간 내 우리 공군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초기 1년간 250여 회 출격해 적 격퇴에 일조했다.

특히 자신이 조종하던 F-51 전투기에 새긴 ‘信念의 鳥人(신념의 조인)’이란 문구는 오늘날 대한민국 조종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리매김했다. 딘 헤

스 대령은 또 1950년 12월 러셀 블레이즈 델 미 공군 군종목사와 함께 수송기 15대를 동원해 1000여 명의 전쟁 고아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후송하고 보육원 설립에 이바지했다.

전쟁 이후에도 수시로 한국을 방문했고, 20여 년간 전쟁 고아 후원금 모금 활동에 앞장섰다. 공군은 이 같은 딘 헤스 대령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기 위해 2017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공적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추모식을 열고 있다.//

공중 종합 전투훈련 ‘소링이글’ (Soaring Eagle)

공군은 확고한 영공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2022년 전반기 소링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6월 20일 부터 24일까지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29전대)에서 실시했다.

지난 2008년부터 연 2회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소링이글 훈련은 우리 공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전역급 공중 종합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F-35A, F-15K, (K)F-16, FA-50, F-4E, F-5 전투기와 KA-1 전술통제기, E-737 항공통제기, CN-235 수송기 등 19개 부대 70여대 항공전력과 200여 명의 임무 요원이 참가했다.



훈련은 기종별 전투 수행능력 강화와 조종사 전투 기량 연마에 중점을 두고 적 공중전력의 대규모 기습 침투를 적용해 야군인 ‘블루 에어(Blue Air)’와 적군인 ‘레드 에어(Red Air)’로 나뉘어 진행했다.//

항공우주력 건설 ‘공군 미래기획위원회’ 출범

공군은 4월 15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공군의 4대 핵심능력 강화와 인공지능(AI)·무인전투체계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공군은 이날 박인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탄생했다. 정책발전·과학기술·무인체계·우주 등 4개 분과로 이뤄졌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정기

회의와 분과별 수시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에는 항공우주연구원 이준 전략기획본부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성배 책임연구위원·심승배 전장정보화연구실장, 국방과학연구소(ADD) 김상희 인공지능센터장·오세준 소요기획연구실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박현철 교수 등 군·산·학·연 전문가 30명이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단계별 발전 방향이 소개됐다.//